Violin Concerto in D minor, WoO 23

- □□

정보

Robert Schumann: Violin

Concerto in D minor, WoO

23

작곡가: Robert Schumann (1810–1856)
작품명: Violin Concerto in D minor, WoO 23 (일부 목록에서는 WoO 1)
장르: 독주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3악장 협주곡
작곡 시기: 1853년 9월 말 –10월 3일
초연: 1937년 11월 26일, Berlin Philharmonic, Georg Kulenkampff, Karl Böhm 지휘
IMSLP: https://imslp.org/wiki/Violin_Concerto_in_D_minor,WoO_23(Schumann,_Robert)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Violin_Concerto_(Schumann)

Robert Schumann의 Violin Concerto in D minor, WoO 23은 1853년 요제프 요아힘을 염두에 두고 쓴 3 악장 협주곡이다 . 작곡 직후 공개되지 않아 1937년에야 초연되었고 , 그 과정에서 초연용 편집과 정치적
선전이 악보의 첫 인상에 개입했다. 독주 바이올린은 높은 음역의 과시보다 중간 음역의 긴 선율과 넓은 아르페지오를 자주 사용하며, 두 번째 악장의 관현악 주제가 피날레로 이어져 세 악장을 한 호흡으로 묶는다.

개요
슈만은 1853년 5월 니더라인 음악제에서 요아힘이 연주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지휘하며 그와
가까워졌다 . 그해 가을 뒤셀도르프에서 D단조 협주곡을 쓰고 요아힘에게 악보를 보냈지만, 요아힘은 독주부의 아르페지오와 중간 음역 쓰기를 불편하게 느꼈다. 10월 하노버 궁정 오케스트라와 맞춰 보는 리허설까지
열렸으나 공개 초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슈만이 1854년 요양원으로 옮겨진 뒤 클라라 슈만, 요아힘, 요하네스 브람스는 작품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요아힘의 유언에 따라 악보는 오랫동안 봉인되었고 , 1937년 독일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 당시 유대계 연주자인 예후디 메뉴힌과 젤리 다라니가 독일 초연을 맡는 길이 막히면서 게오르크 쿨렌캄프가 선택되었고 , 초연은
나치 정권이 ‘독일적 ’ 레퍼토리로 내세운 행사와 겹쳤다.

이런 수용사는 중요하지만 곡의 음악을 슈만의 병력에 대한 증거로 환원하지는 않는다. 20세기 후반 이후 자필 총보와 초기 사본을 다시 읽은 편집자와 연주자들은 독주부의 낮은 음역, 느린 악장의 집요한 선율, 폴로네즈풍

피날레를 후기 슈만의 독자적인 협주곡 언어로 다루고 있다.

출판 정보와 자료

1937년 Schott가 낸 초연용 악보에는 편집과 수정이 들어갔다. 독주부와 피아노 축약에는 파울 힌데미트와 게오르크 슌만이 관여했고, 이 판본을 슈만의 자필과 동일시할 수 없다. Berlin Staatsbibliothek에 보존된 자필 총보와 베를린 ·츠비카우의 피아노 축약 사본을 바탕으로 Christian Rudolf Riedel과 Thomas Zehetmair가 2009년 Breitkopf & Härtel 원전판을 편집했다.

목록 체계에 따라 작품 번호가 WoO 23 또는 WoO 1로 나타난다. 두 번호가 서로 다른 협주곡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McCorkle 계열과 Schumann-Portal·Deutsche Digitale Bibliothek가 WoO 1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의 표기는 WoO 23을 따른다.

소요 시간

전곡은 대체로 30–33분이다. Anthony Marwood와 Douglas Boyd의 녹음은 32분 12초로, 1악장 15분 21초 , 2악장 5분 57초, 3악장 10분 54초다. 템포와 반복, 초연용 판본의 편집 여부에 따라 몇 분의 차이가 생긴다.

편성

독주: 바이올린
목관: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과 타악기: 호른 2, 트럼펫 2, 팀파니
현악: 현악 5부

독주 바이올린은 오케스트라 위로 계속 솟아오르는 고음역보다 중간 음역에서 관현악과 선율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독주자의 음색과 활의 방향이 반주와 분리되기보다 , 목관과 저음 현이 이어 주는 선율 안에 묻혔다가 다시 떠오르는 방식으로 들린다.

악장별 구성

I. In kräftigem, nicht zu schnellem Tempo

1악장은 어두운 D단조의 관현악 주제로 시작한다. 독주 바이올린이 들어온 뒤에도 오케스트라와 독주가 경쟁하기보다 주제와 반주 재료를 교대로 나눈다. 넓은 아르페지오와 중간 음역의 긴 선율이 이어져, 멘델스존 협주곡처럼 고음역 기교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과 다르다.

독주부에는 빠른 음형과 긴 호흡의 선율이 한꺼번에 놓여 있다. 독주자가 음을 가볍게 흘리면 관현악의 어두운 화음이 남고, 프레이즈를 넓게 잡으면 바이올린이 오케스트라의 한 성부처럼 들린다. Anthony Marwood의

녹음에 대한 평론은 이러한 중간 음역의 쓰기를 협주곡의 핵심적인 난점으로 꼽는다.

II. Langsam

느린 2악장은 짧은 시간 안에 곡의 내면적인 중심을 만든다. 관현악이 먼저 싱코페이션을 포함한 주제를 제시하고, 독주 바이올린은 그 위에 절제된 노래를 얹는다. 마지막에는 관현악 주제가 피날레로 이어져, 두 번째 악장이 세 악장 사이의 연결부가 된다.

이 선율은 슈만이 1854년 요양원에서 쓴 *Geistervariationen*의 주제와 닮았다는 설명을 자주 낳았다. 그러나 이 연관성을 작곡 당시의 의식적인 계획으로 확정할 자료는 없다. 느린 악장의 반복과 음역 변화 자체를 먼저 들으면, 전기적 이야기 없이도 이 부분이 왜 협주곡 전체의 중심으로 기능하는지 알 수 있다.

III. Lebhaft, doch nicht schnell

피날레는 폴로네즈풍 리듬과 반복되는 음형을 결합한다. 빠르기를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같은 리듬이 굳어지고, 반대로 템포가 처지면 춤의 탄력이 사라진다. 독주 바이올린은 화려한 종결을 독점하기보다 여러 동기와 반주층 사이를 오가며 마지막까지 오케스트라와 대화를 이어 간다.

요아힘은 이 악장을 지나치게 반복적이라고 보았지만, 최근 연주에서는 리듬의 악센트와 프레이즈 길이를 유연하게 조절해 예상 밖의 광채를 끌어낸다. Baiba Skride와 Antje Weithaas의 녹음에 대한 평론도 피날레를 기교만으로 채우지 않고, 어두운 외부 악장과 연결되는 춤의 결말로 다룬다.

판본과 초연의 역사

요아힘이 공개 초연을 거절한 뒤 작품은 80년 넘게 악보장에 머물렀다. 1933년 젤리 다라니가 작품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일화가 널리 퍼졌지만, 당시 그녀가 이미 요아힘 가문의 편지와 작품 일부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베를린의 프로이센 국립도서관에서 자필 총보가 확인되었고, Schott가 출판과 초연을 추진했다.

1937년 초연에서는 쿨렌캄프가 독주를 맡고 카를 뵘이 베를린 필하모닉을 지휘했다. 힌데미트와 슈만은 독주부와 피아노 축약을 공연 가능한 형태로 다듬었다. 메뉴힌은 열흘 뒤 카네기홀에서 피아노 반주로 미국 첫 연주를 열었고, 이후 여러 지휘자와 전곡을 연주하며 작품의 다른 전승을 만들었다.

2009년 Breitkopf 원전판은 슈만의 자필과 초기 사본을 중심으로 1937년판의 독법 오류와 추가 아티큘레이션을 바로잡았다. 원전판을 사용하는 연주는 1937년 초연판의 역사적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슈만이 남긴 음표와 후대의 공연용 개입을 구분해 들려준다.

수용과 녹음

1937년 초연의 정치적 맥락 때문에 이 협주곡은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전기 서사와 함께 다뤄졌다. 그러나
자필 총보를 바탕으로 한 새 판본과 연주는 독주부의 저음역, 느린 악장의 집요한 연결, 피날레의 폴로네즈
리듬을 음악적 문제로 되돌려 놓았다. 어떤 판본을 쓰는지와 독주 ·관현악의 균형을 함께 살피면, 초연 때의 편집이 작품의 유일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Baiba Skride와 John Storgårds의 2013년 녹음은 낮은 목소리처럼 가라앉은 독주와 느린 악장의 절제를 강조한다. Antje Weithaas와 Andrew Manze의 2020년 녹음은 독주부의 빠른 음형을 가볍게 흘리면서도 D 단조의 어두운 집중을 유지하고, 피날레의 춤 리듬에 예상 밖의 밝음을 준다. Anthony Marwood와 Douglas Boyd의 2012년 녹음은 안정적인 외부 악장 템포와 독주 ·오케스트라의 균형을 통해 협주곡의 전체 호흡을
보여 준다.

주요 레코딩

Anthony Marwood / BBC Scottish Symphony Orchestra, Douglas Boyd (Hyperion, 2012): 2009년 원전판의 성격과 32분 12초의 전체 흐름을 접할 수 있다. 중간 음역의 독주와
관현악의 응답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Baiba Skride / Danish National Symphony Orchestra, John Storgårds (Orfeo,
2013): 느린 악장의 절제된 서정과 외부 악장의 안정된 무게를 앞세운다. 독주를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해석을 비교할 수 있다.
Antje Weithaas / NDR Radiophilharmonie, Andrew Manze (CPO, 2020): 독주부의 난해한 빠른 음형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Langsam 의 사색성과 폴로네즈 피날레의 광채를 함께 살린다.
Midori / Lucerne Festival Strings, Daniel Dodds (Pentatone, 2026): 후기 슈만의
독주 쓰기를 성숙한 저음역과 고요한 느린 악장으로 다룬 최신 녹음이다. 1937년 초연의 정치적
배경과 분리해 음악 자체를 들을 수 있는 사례다.
Gidon Kremer / Chamber Orchestra of Europe, Nikolaus Harnoncourt (1995): 느린 악장의 음색과 피날레 템포에 대한 논쟁을 보여 주는 기록이다. 같은 작품을 더 극단적인 빠르기와
악센트로 해석한 비교 자료가 된다.

주요 자료

Deutsche Digitale Bibliothek, Schumann 자필 총보: 작곡 연대와 Berlin Staatsbibliothek 소장 정보.

Schumann-Portal, Breitkopf Urtext: WoO 번호, 2009년 원전판, 1937년 Schott판과의 편집
차이.

Hyperion, Violin Concerto WoO 23: 요아힘과의 관계, 1937년 초연, 세 악장 연결과 Marwood
녹음 정보.

IMSLP, Violin Concerto in D minor: 작품 번호, 자필 원고와 표준 편성.

Scottish Chamber Orchestra, Schumann’s Violin Concerto: 요아힘과의 만남, 장기간 봉인, 초연의 수용사.

The Strad, 작품의 재발견: 1930년대 원고 탐색과 초연 경쟁.

Gramophone, Skride / Storgårds: 2013년 녹음의 독주와 오케스트라 균형.

Gramophone, Weithaas / Manze: 2020년 원전판 녹음의 독주부와 피날레 평가. Gramophone, Marwood / Boyd: 2012년 녹음과 작품의 역사적 위치. Gramophone, Midori: 최신 녹음의 저음역 독주와 수용사.